

# ‘남도(南道)’의 의미 변이 및 변화 양상 고찰

-<네이버> 뉴스 텍스트를 중심으로 -\*

강 희 숙\*\*

- I. 들어가는 말
- II. 전통시대의 ‘남도’
- III. ‘남도’의 의미 변이 및 변화 양상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오늘날 ‘남도(南道)’는 국어사전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그동안 이루어진 사회 구조 또는 사용 맥락의 변화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 변이를 보이는 가운데 일정한 의미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적 사실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도’의 지리적 의미가 전통적으로 어떠한 공간적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었는지를 ‘한국고전종합DB’를 통해 살펴본 뒤, 모두 7개의 주제어와 관련되어 나타난 경험의 변화를 검색 포털 <네이버>의 뉴스 텍스트(news

---

\* 이 논문은 2019년 1월 25일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에서 열린 <제49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동일 제목의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2018학년도 조선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hskang@chosun.ac.kr

text) 검색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남도’는 전통적인 지리적 공간과는 다른 다양한 의미 변이를 보이는 가운데 주로는 ‘광주·전남’ 지역이라는 제한된 지리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남도’는 전통적으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다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광주·전남’ 지역으로 축소되는 의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남도’의 의미는 본 연구에서 관찰된 주제어 외에 더 많은 수의 주제어들이 보여주는 의미 변이의 총합을 토대로 추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우리의 사전들이 일정한 의미론적 범주에 속하는 어휘 혹은 개별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을 토대로 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웹 말뭉치(web corpus)의 활용이 유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주제어

---

남도, 공간적 체험, 지리적 의미, 의미 변이, 의미 변화, 뉴스 텍스트, 웹 말뭉치

## I. 들어가는 말

개별 언어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 및 언어공동체의 축적된 경험이므로, 그 경험이 변화함에 따라 변화를 겪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성격의 언어 변화는 특히 어휘적 층위에서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바, 일정한 사회 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이루어지는 개별 화자 또는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의 경험의 변화는 개별 어휘가 지닌 의미 범주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언어적 사실을 방증해 주는 어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남도(南道)’이다. ‘남도(南道)’는 오늘날 국어사전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분히 전통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그동안 이루어진 사회 구조의 변화 또는 사용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 변이를 보이는 가운데 일정한 의미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남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 (1) ㄱ. 남쪽 북으로 되어 있는 도에서 남쪽에 있는 도를 이르는 말.
- ㄴ. 경기도 이남의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남로·남중.

이러한 의미 가운데 (1ㄱ)은 행정 구역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1ㄴ)은 ‘남도’의 지리적 의미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남도’를 지리적으로 경기도 이남 지역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이 특징이다.

문제는 (1ㄴ)에 제시된 ‘남도’의 지리적 의미는 다분히 전통적인 또는 왕조 시대의 관념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오늘날 한국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펴낸 『고전용어사전』(2001)에서는 ‘남도’를 “경기도 이남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총칭하는 말.”로 정의하고 있으며,

오홍석(2008)에서는 조선조에 ‘남도(南道)’라 함은 ‘왕성이 있는 경기 이남’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바, 『표준국어대사전』에 정의된 ‘남도’의 개념은 다분히 왕조 시대의 전통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가정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는 국어 어휘들이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방식을 생생하게 담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10월 개통한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에 해당하는 『우리말샘』에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sup>1)</sup> 문제의 심각성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남도’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비교적 다양한 의미의 언어 변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변이의 결과 의미론적 층위에서 일종의 진행 중인 언어 변화(language change in progress)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언어적 사실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언어 공동체 구성원의 공간적 경험이 무엇인가에 따라 ‘남도’의 의미가 어떠한 변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변이의 결과로 나타나는 언어 변화로서 ‘남도’의 의미 변화 방향을 추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의도하에 본 연구에서는 ‘남도’의 지리적 의미가 전통적으로 어떠한 공간적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었는지를 고전문헌 종합 데이터베이스인 ‘한국고전종합DB’<sup>2)</sup>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 뒤,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공간적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검색 포털 <네이버>의 뉴스 텍스트 검색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

1) 『표준국어대사전』에서와 동일하게 『우리말샘』에서도 ‘남도’의 의미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ㄱ. 남과 북으로 되어 있는 도에서 남쪽에 있는 도를 이르는 말.

ㄴ. 경기도 이남의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는 고전번역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한국문집총간 등 한국고전번역원의 사업 성과물을 담은 고전문헌 종합 데이터베이스로 2001년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9억여 자의 텍스트와 78만 편의 이미지, 500만 건의 메타데이터 등 방대한 규모의 한문고전문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II. 전통시대의 ‘남도’

‘남도’라는 지명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 듯하다. 다만, ‘한국고전종합DB’의 『조선왕조실록』에서만 하더라도 ‘남도’를 대상으로 한 기록들이 상당수 있어 적어도 조선 시대에는 ‘남도’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남도’의 첫 번째 사례는 ‘오랑합과 수오적개 등 4인의 투항 사실과 당시 북방 야인들의 귀화 실태’를 기록하고 있는 태조 4년(1395) 12월 14일 기사라는 점에서 조선 왕조의 개국이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된 시기에도 ‘남도’라는 지명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이 그 예이다.<sup>3)</sup>

(2) 도왜(島倭)들도 얼굴을 고치고 내조(來朝)하여 다시 무역을 하게 되어, 남도의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곳을 정하여, 호구가 더욱 불어나고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리게 되었으며, 바닷가의 땅과 매우 험준한 섬까지 남김없이 개간하여, 전쟁을 모르고 날마다 마시고 먹을 뿐이다.<sup>4)</sup>

이 기사에는 ‘南道之民’, 곧 ‘남도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남도’의 공간적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태조 4년(1395)부터 ‘남도’라는 지명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조선조 이전부터 ‘남도’가 사용되었으리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고려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였던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고율시(古律詩) 한 편<sup>5)</sup>에도 다음과 같이 ‘남도’가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

3) <태조실록> 8권 참조.

4) 島倭革面來朝，復通商賈，南道之民，安心奠居，戶口益增，雞鳴狗吠相聞，濱海之地，斗絕之島，墾田無遺，不知兵革，日用飲食而已

5) “순창군(淳昌郡)으로부터 진주로 향할 때 갈담역(葛覃驛)에 들어가 판상(板上)에 있는 제공(諸公)의 시에 차운하다”라는 부제를 갖고 있다.

- |             |                            |
|-------------|----------------------------|
| (3) 夕陽歸旆樹陰中 | 석양에 돌아오는 깃발 나무 그늘 속으로      |
| 南道山川一樣同     | 남도의 산천 어디나 한 모양이로구나        |
| 垂柳惱人隨處綠     | 늘어진 버들 곳곳에서 사람 홀리고         |
| 幽花無主爲誰紅     | 주인 없는 그윽한 꽃 누굴 위해 붉게 피나    |
| 郵亭闕遍經由客     | 역정에는 모든 손님 거쳐 가는데          |
| 野性誰如放曠翁     | 비아(鄙野)한 사람이 누가 방광한 늙은이만 하라 |
| 不作窓忙乘傳態     | 역마 타는 태도 서두름이 없어           |
| 解衣閑臥一軒風     | 옷을 풀고 마루에 한가히 누워있네         |

문제는 이러한 사례들에서 ‘남도’라는 지명이 일찍이 고려 때부터 사용되었음을 알 수는 있으나 그 지시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남도’는 애초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가리키는 ‘하삼도(下三道)’ 또는 ‘하도(下道)’와 동일한 의미로 쓰였음이 확인된다. 다음이 그 예이다

- (4) ㄱ. 이 사람들을 하삼도(下三道)의 여러 고을로 옮겨 역리(驛吏)와 관노(官奴)로 충용(充用)하시면 매우 편하겠습니다.<sup>6)</sup> <태종 2년 임오(1402) 2월 4일>
- ㄴ. 하삼도(下三道)의 군인으로 주(周)나라 때 흉노를 방어하던 예와 같이 서로 번을 갈아 수졸(戍卒)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하나, 신은 이를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저 고향을 그리는 마음은 막기 어려운 것이며, 가정을 연모하는 생각은 금할 수 없는 것인즉, 남쪽의 요원한 땅에 있는 백성을 북방의 극변에 갖다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북변과 남도와의 사이에 거리는 한두 사(舍)105) 가 아니며, 그 노정이 하루 이틀의 거리가 아니어서, 왕복에 지루하고 도로에서 지치기 때문에, 그 행역을 마치 형장(刑場)에 나가는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sup>7)</sup> <세종 18년(1436) 윤6월 19일 계미 2번째 기사>

6) 乞將此人等，移於下三道諸郡，以充驛吏官奴甚便

7) 以下三道軍人，如周時防秋之例，遞番更戍可也。"臣以謂不可也。大抵懷土之心難以遏，室家之念不可禁也，則不可以南極遙遠之民，置之北鄙也，而況北鄙南道之相距，其舍非一二舍，其行非非一二日，困於往返，疲於道路，見其行也如往棄市

ㄷ. 강원도·동북면은 너무 궁벽하여, 도적이 반드시 **하도(下道)**를 거쳐야만 그 곳에 이를 수 있으니<sup>8)</sup> <정종 1년(1399), 3월 13일 갑신 2번째 기사>

위 기록 가운데 (4ㄱ)은 <태종실록>에 ‘하삼도’라는 지명이 쓰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4ㄴ)은 <세종실록>에 실려 있는 것으로, ‘하삼도’를 달리 ‘남도’로 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4ㄷ)은 ‘하삼도’가 ‘하도’로도 쓰였음을 확인하게 해 준다. 이와 같은 기록들을 통해 볼 때 (2), (3)의 용례에서 쓰인 ‘남도’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포함하는 ‘하삼도’ 또는 ‘하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제14권에 게재된 ‘충청도 청풍군’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을 방증해 주는 것이다.

(5) 산천이 기이하고 빼어나서 **남도(南道)**의 으뜸이 된다.<sup>9)</sup>

위 기록에 따르면, ‘충청도 청풍군’ 지역 또한 ‘남도’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도’는 전통적으로 ‘하삼도’나 ‘하도’ 곧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남도’의 전통적 의미가 오늘날에도 『표준국어대사전』을 비롯한 여러 국어사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0)</sup>

8) 江原道東北面深僻, 賊必經**下道**, 得至其地

9) 山川奇秀, 爲**南道**冠

10)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한글학회에서 간행한 『우리말큰사전』이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펴낸 『한국어대사전』 역시 『표준국어대사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남도’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1998년에 간행한 『연세한국어사전』에서만 ‘남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 여타의 사전들과 차이를 보였다.

전라도와 경상도 일부를 포함하는 한반도 중부 이남의 남쪽 반도 일대(『연세한국어사전』)

위와 같이 『연세한국어사전』에서 다른 사전들과는 다른 방식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이 사전이 『연세 말뭉치』에서 실생활에 직접 쓰이는 용례를 선별하여 표제어

흥미로운 사실은 조선 시대의 경우, ‘남도’는 ‘하삼도’, ‘하도’라는 지명 외에도 ‘남중(南中)’ 또는 ‘남로(南路)’, ‘삼남(三南)’ 등으로도 쓰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6) ㄱ. 정철(鄭澈)이 남중(南中)으로 가는 행차는 도로가 좁 통하기까지 기다렸다가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sup>11)</sup> <선조 25년(1592), 7월 28일 을유 4번째 기사>
- ㄴ. 전라(全羅)·경상(慶尙) 양도는 본국 남로(南路)의 요해처인데 두 번이나 적화(賊禍)를 입어 분탕, 도살(屠殺)됨이 다른 곳보다 배는 된다.<sup>12)</sup>  
<선조실록 121권, 선조 33년(1600) 1월 16일辛酉 5번째 기사>
- ㄷ. 북방의 공사전은 삼남(三南)의 공사전과 같지 않아 호환(胡患)이 있으면 모두 다 싸움에 나가니 일종의 토병입니다.<sup>13)</sup> <선조 36년(1603) 8월 24일 정미 1번째 기사>

위의 사례들 가운데 (6ㄱ)은 ‘남도’를 대신하여 ‘남중(南中)’이 사용되었음을, (6ㄴ)에서는 ‘남로(南路)’가, (6ㄷ)에서는 ‘삼남(三南)’이 각각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ㄴ)을 보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남도’의 두 번째 의미와 비슷한 의미의 유의어로 ‘남로’와 ‘남중’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의 근거는 바로 (6)의 사례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논의에서는 조선 시대의 경우, ‘남도’가 지리적으로 ‘하삼도(하도)’, 곧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으며, ‘하삼도(하도)’ 외에 ‘남중(南中)’ 또는 ‘남로(南路)’, ‘삼남(三南)’ 등의 지명들이 쓰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문제는 오늘날 한국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있는 ‘남도’는 전통사회의 ‘남도’도, 몇몇 국어사전들에서 제시된 ‘남도’도 아닌 의미를 새롭게 획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3장에서는 국내 최대의 검색 포털이라고 할 수 있는

---

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1) 鄭澈南中之行, 少待道路粗通, 發遣何如?

12) 乃查全、慶兩道, 係是本國南路要害. 再被賊禍, 焚燒屠殺之慘, 倍於別處

13) 北方公私賤, 不類三南之公私賤, 如有胡患, 率皆赴戰, 亦一土兵

‘네이버’의 뉴스 텍스트에서 사용된 ‘남도’와 공기를 보이는 몇몇 주제어 검색을 통해 오늘날 ‘남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미 변이의 모습과 함께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진행 중인 언어 변화의 모습을 확인하고자 한다. 김진해(2006: 83)에 따르면 말뭉치 연구는 어휘가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이해되는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남도가 일정한 상황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Ⅲ. ‘남도’의 의미 변이 및 변화 양상

웹 말뭉치를 활용한 언어 연구의 장점과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는 남길임(2018: 25)에서는 말뭉치 언어학의 영역에서 웹은 ㄱ) 기존의 균형 말뭉치와 다른 엄청난 용량을 제공하고, ㄴ) 즉각적인 현실 언어를 반영 하며, ㄷ)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웹 언어는 상당한 오류와 함께 정제되지 않은 이른바 ‘dirty data’라는 인식(Blackwell 1993, Kilgarriff & Grefenstette 2003: 342)<sup>14)</sup>이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본 연구는 웹 언어 가운데 언어 사용의 오류가 덜하고 비교적 정제된 자료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 뉴스 텍스트에서 ‘남도’와 관련되는 7개의 주제어들이 텍스트의 내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남도’의 의미 변이와 그와 관련된 의미 변화의 모습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네이버’의 뉴스 텍스트는 1990년 1월 1일부터 제공되고 있음이 특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까지라면, 거의 30년 정도의 실제 시간(real time)에서 신문이나 방송사

---

14) 남길임(2018: 24)에서 재인용.

의 뉴스 텍스트를 생산하고 수용한 한국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남도’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 또는 재구성해 왔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남도’의 의미 변이 및 변화의 양상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지게 된 셈이다.

연구 대상이 된 남도 관련 주제는 ‘남도인, 남도땅, 남도김치, 남도문학, 남도 화단(畫壇), 남도 사투리, 따뜻한 남도’ 등 모두 7개이다. 다소 주관적 판단에 기댄 감이 없지 않지만, 이러한 주제어들은 남도를 포함하는 단어 혹은 구의 성격을 지니는 것들로, 남도의 의미를 추출해 내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점에서 선정이 이루어졌다.

우선 7개 주제가 조사 기간, 즉 1990. 1. 1.~2018. 12. 31.의 기간 동안 네이버의 뉴스 기사에서 어느 정도의 빈도로 출현하고 있는지 하나의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 주제의 출현 빈도<sup>15)</sup>

의미	빈도(건)	비고
남도인	279	
남도땅	107	
남도김치	366	고유명사는 제외.
남도문학	236	
남도 화단	93	
남도 사투리	268	
따뜻한 남도	170	
계	1,519	

15) ‘주제어’의 빈도는 조사 기간 내에서 ‘주제어’가 사용된 뉴스 텍스트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동일 텍스트에서 ‘주제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한 건으로 계산하여 빈도를 추출하였음.

여기에서 보듯이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주제어는 많게는 366건의 출현 빈도를 보이는 ‘남도김치’에서부터 적게는 93건의 빈도를 보이는 ‘남도화단’이 포함되며, 전체 출현 빈도는 모두 1,519건이다. 그렇다면 조사 대상 주제어들이 네이버 뉴스 기사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선 ‘남도인’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남도인’의 빈도는 모두 279건인데 이러한 텍스트들에서 사용된 ‘남도’의 의미 변이 및 분포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2> ‘남도인’의 의미 변이 및 분포

의미	분포		비고
	빈도(건)	비율(%)	
광주·전남	215	77.1	
전남+ 경남	38	13.6	
호남	25	9.0	
호남+ 경남	1	0.4	지리산 답사 기행전
총계	279	100.0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도인’에서 사용된 ‘남도’의 의미는 ‘광주·전남’ 지역이 7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남+ 경남’이 그다음으로 13.6%를 차지한다. 또한 ‘호남’은 9.0%, ‘호남+ 경남’은 0.4%를 각각 차지한다. 이와 같은 의미 변이를 가능하게 하는 전형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7) ㄱ. **광주·전남**: 光州·全南 도내 각 구, 읍, 면, 동사무소에 마련된 수해의연금 접수구에는 할머니에서부터 손자에 이르기까지 남도인의 따뜻한 정을 담은 물품이나 돈을 기탁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연합뉴스, 1990. 9. 14.>

- ㄴ. **전남+경남**: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공동선언문을 통해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섬진강과 남해안 물길, 그리고 경전선 철길은 양 지역의 사람과 물산, 문화를 교류시킨 통로였고 통합의 공간"이라며 "경전선 복선화 사업으로 멈춰 선 전남 순천에서 경남 삼랑진까지의 169km 철길은 **남도인**의 삶과 역사가 자리한 훌륭한 문화공간"이라고 밝힌다. <경남도민일보, 2013. 12. 8.>
- ㄷ. **호남**: 전통 수목화와 남종화는 **남도인**의 삶과 정서를 배경으로 성장해 왔던 호남인들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담고 있으나 최근 화려한 현대미술에 밀려 점차 맥이 끊기고 있다. <뉴시스, 2009. 5. 29.>
- ㄹ. **호남+경남**: 이번 전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2박 3일 동안 지역 작가 18명과 김용택 시인, 이계표 선생과 함께 남도 문화의 보고인 지리산 주변의 전남 구례, 전북 남원, 경남 산청, 함양 등을 답사하고, 지리산 자락의 웅장한 모습과 문화유산을 화폭과 사진으로 담은 기획전이다. 이 전시회는 영호남 문화의 원류를 이해하며, 그동안 **남도인**의 정신 속에 머물렀던 지리산을 되살려 보자는 의도로 준비했으며 9월 2일까지 계속된다. <노컷뉴스, 2009. 8. 24.>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남도인’을 구성하는 ‘남도’의 지리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sup>16)</sup> 즉, <네이버>의 뉴스 텍스트 안에서 ‘남도인’의 ‘남도’는 77.1%의 비교적 높은 비율로 ‘광주·전남’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는 ‘전남+경남’, ‘호남’, ‘호남+경남’ 지역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표 2>와 (7)의 사례들 어디에서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된 ‘남도’ 지역 가운데 ‘충청도’나 ‘경북’, ‘제주도’라는 공간의 의미는 추출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오늘날 ‘남도’의 지리적 의미는 전통적인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대부분의 경우, ‘광주·전남’ 지역으로 한정되는 의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주제어인 ‘남도땅’의 구성 요소인 ‘남도’ 역시 ‘남도인’의 ‘남

---

16) 이와 같은 ‘남도’의 지리적 의미는 해당 텍스트에서 ‘남도’의 구체적인 지시 대상이 무엇인지 그 맥락을 고려하여 파악하는 방식을 택하였음.

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네이버> 뉴스 텍스트에서 ‘남도땅’의 용례를 검토한 결과 확인된 ‘남도’의 의미 범주는 다음과 같다.

<표 3> ‘남도땅’의 의미 변이 및 분포

의미	분포		비교
	빈도(건)	비율(%)	
광주·전남	103	96.3	
전남+경남	3	2.8	
호남+충남	1	0.9	
총계	107	100	

위의 표에서 보듯이 ‘남도땅’의 ‘남도’는 무려 96.3%의 압도적인 비율로 ‘광주·전남’ 지역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표 2>에 제시한 ‘남도인’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남도땅’의 ‘남도’에서 진행된 의미 변화가 훨씬 더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표 3>에 제시된 ‘남도땅’의 ‘남도’ 가운데는 ‘호남+충남’을 지시하는 경우가 한 건 포함되어 있어, ‘남도인’의 ‘남도’와는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사용된 ‘남도’의 의미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사용된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

- (8) 1894년 동학혁명은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의 비리와 학정으로 농민들의 원성이 커졌다. 녹두장군 전봉준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봉기해 관아를 습격했다. 횡포를 일삼던 아전들을 처벌하고 창고의 곡식을 풀어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보국안민 척왜양창”을 기치로 내걸고 **남도땅**을 휩쓸고 다녔다. 농민군은 그해 11월 공주 우금치 전투와 태인 전투에서 패배하고 급격히 쇠락한다. <이코노미톡뉴스, 2018. 9. 18.>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8)에서 사용된 ‘남도땅’의 ‘남도’는 ‘동학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하여 쓰인 것이다. ‘동학혁명’의 무대가 호남 지역에서 시작되어 2차적으로는 우금치 지역을 비롯하여 공주, 서천, 한산 지역 등으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8)의 사례에서 사용된 ‘남도땅’의 ‘남도’는 역사적 맥락에서 쓰인 ‘호남+충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도김치’에서 쓰인 ‘남도’의 의미 또한 ‘광주·전남’ 지역으로 규정되는 변화를 겪고 있다. 다음은 ‘남도김치’의 의미 변이 및 분포 양상을 제시한 것이다.

<표 4> ‘남도김치’의 의미 변이 및 분포

의미	분포		비고
	빈도(건)	비율(%)	
광주·전남	352	96.2	
전북	10	2.7	
경남	4	1.1	
총계	366	100.0	

<표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도김치’의 ‘남도’는 ‘광주·전남’을 의미하는 경우가 96.2%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으로 ‘전북’ 2.7%, ‘경남’ 1.1%의 순서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씩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9) 가. **광주·전남:** 자갈치 상인들은 양동 상인들에게 **남도김치**, 것갈, 농산물을 30여t 주문했고 양동 상인들도 자갈치 상인들에게 싱싱한 해산물을 구입하기로 했다. <문화일보, 2003. 5. 21.>
- 나. **전북:** 로컬푸드를 활용한 밀반찬부터 향토음식, 서양요리, **남도김치**, 생일 파티, 팜 파티(farm party) 상차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문 실습교육을

‘남도(南道)’의 의미 변이 및 변화 양상 고찰(강희숙)

실시하여, 자격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조리사로서 차세대 식생활 리더를 양성한다. <내외경제tv, 2018. 8. 21.>

- ㉔. **경남**: 통영 사내들은 복이 많다. 종일 술독을 끼고 살아도 속 다스려 줄 해장국이 넘쳐나니까. 두부와 무쳐낸 톳나물이며 통밀치 컷갈, 간이 센 **남도김치**가 국에 밀려 그대로 남았다. 30년간 맑은 국을 끓여왔다는 사내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음식을 추억하기에 바쁘다. <서울신문, 2013. 3. 14.>

위의 사례들에서 등장하는 ‘남도김치’의 ‘남도’는 각각 ‘광주’(9㉑), ‘남원’(9㉒), ‘통영’(9㉔) 등지를 가리킨다. 중요한 언어적 사실은 (9㉑)의 사례에서처럼 ‘남도김치’의 ‘남도’가 ‘광주·전남’을 의미하는 경우가 96.2%나 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전북’이나 ‘경남’을 의미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남도’의 의미 변화의 방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네 번째 주제어인 ‘남도문학’의 ‘남도’가 보이는 의미 변이 양상 또한 앞에서 살펴본 주제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음은 ‘남도문학’의 ‘남도’가 보이는 의미 변이 및 분포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남도문학’의 의미 변이 및 분포

의미	분포		비고
	빈도(건)	비율(%)	
광주·전남	225	95.3	
전남+ 경남	6	2.5	
호남	2	0.8	
전북	1	0.4	
호남+ 경남	1	0.4	
경남	1	0.4	
총계	236	100.0	

<표 5>에서 보듯이, ‘남도문학’의 ‘남도’는 ‘광주·전남’ 지역을 비롯하여, ‘전남+경남, 호남, 전북, 호남+경남, 경남’ 등의 의미 변이를 보이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을 의미하는 경우가 무려 95.3%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언어적 사실은 김동근(2012: 5)에서 “‘남도’는 ‘호남’과 혼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주로 ‘광주·전남’을 가리킨다.”라고 기술한 것과 부합하는 것으로, ‘남도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남도’의 공간적 범위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호남’을 가리키는 경우는 0.8%로서 ‘전남+경남’을 가리키는 경우 2.5%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김동근(2012: 5)에서 ‘남도’가 ‘호남’과 혼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진술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미술계의 화가 공동체를 뜻하는 ‘남도 화단(畫壇)’의 구성요소인 ‘남도’는 다른 주제어들에서의 ‘남도’와는 달리 그 의미 변이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즉, <표 6>에서 보듯이, ‘남도 화단(畫壇)’의 ‘남도’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의미로만 해석되는 것이다.

<표 6> ‘남도 화단’의 ‘남도’ 의미 변이 및 분포

의미	분포		비고
	빈도(건)	비율(%)	
광주·전남	92	98.9	
호남	1	1.1	
총계	93	100	

여기에서 보듯이 ‘남도 화단’의 ‘남도’는 98.9%가 ‘광주·전남’ 지역을, 1.1%가 ‘호남’ 지역을 가리킴으로써 그 의미 변이의 폭이 좁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미술계에서 말하는 ‘남도 화단’은 결국 전라도 지역, 그 가운데서도 주로 ‘광주·전남’ 지역만을 배타적으로 가리킴으로써 그 고유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남도 화단’을 구성하는 요소인 ‘남도’의 의미 변이의 단순성에 비하면

‘남도 사투리’의 경우는 그 변이의 폭이 꽤 넓으며, 따라서 ‘광주·전남’ 지역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다음은 ‘남도 사투리’의 ‘남도’가 보여주는 의미 변이 및 분포 양상이다.

〈표 7〉 ‘남도 사투리’의 의미 변이 및 분포

의미	분포		비고
	빈도(건)	비율(%)	
광주·전남	179	66.8	
호남	51	19.0	
전북	24	9.0	
경남	12	4.5	
경기이남	1	0.4	
남한	1	0.4	
총계	268	100.0	

여기에서 보듯이, ‘남도 사투리’의 ‘남도’가 의미하는 변이의 폭은 비교적 넓은 편에 속한다. 물론 ‘광주·전남’ 지역을 가리키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다른 주제어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때로는 ‘경기 이남’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남한’ 전체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이의 모습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0) ㄱ. **광주·전남**: 내가 작가 ‘조정래’를 처음 접한 것은 ‘태백산맥’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당시 남도 사투리의 리듬을 탈 수 없었던 나는 몇 장을 못 넘기고 다

음을 기약하며 책을 접어야 했다. <오마이뉴스, 2002. 4. 4.>

- ㄴ. **호남:** 주로 목포, 군산, 광주, 영광 등지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 분들을 보조 출연자로 섭외했는데 나에게 **남도 사투리** 참 제대로 쓴다고 하더라. <무비스트, 2017. 12. 1>
- ㄷ. **전북:** 새 시집은 시인의 고향인 전북 김제평야와 익산 사이에 위치한 마현리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그는 소년시절이던 한국전쟁 때부터 5·16 군사쿠데타에 이르는 질곡 많은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다. 그곳에서 겪은 전쟁에 관한 기억, 전후 어려운 시절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수한 **남도 사투리**로 풀어놓았다. <연합뉴스, 2005. 4. 16.>
- ㄹ. **경남:** 그러나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를 조잘조잘 외우던 것과 그의 체취가 서린 현장에서 그 시조를 한숨처럼 토해냈을 장군을 떠올리는 느낌은 확연히 달랐다. (중략) **남도 사투리**가 정겨운 문화해설사의 목소리에선 진심으로 장군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왔는데 그녀의 말, 어느 대목에서 나는 그만 느닷없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한국경제, 2012. 12. 7.>
- ㅁ. **경기 이남:** 공영방송 KBS에서 고향극장이라는 제목 아래 진한 **남도 사투리**로 프로그램 내레이션을 하고 있다. 반응이 좋아 고향극장은 점차 좋은 시간대로 옮겨 편성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 2014. 1. 14.>
- ㅂ. **남한:** 남북은 1945년 해방 되기 전까지 같은 말과 글을 가지고 한 민족으로 살아왔다. 통행에도 제한이 없었다. 남쪽은 **남도 사투리**, 북쪽은 북도 사투리에 불과했다. <데일리NK, 2009. 11. 6.>

이러한 사례들에서 보듯이 ‘남도 사투리’의 ‘남도’는 ‘광주·전남’(10ㄱ)이나 ‘호남’ 지역(10ㄴ)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북’(10ㄷ)과 ‘경남’(10ㄹ) 외에, ‘경기 이남’(10ㅁ)은 물론, ‘남한 전체’(10ㅂ)를 가리키는 데도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해당 어휘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의미의 확대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언어적 사실은 다른 주제어들에 비해 ‘남도 사투리’의 ‘남도’가 ‘광주·전남’ 지역을 가리키는 경우가 66.8%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호남’과 ‘전북’ 지역을 가리키는 비중이 28.0%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도 사투리’의 ‘남도’는 ‘전라도’ 지역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겠다.

사용 맥락에 따라 ‘남도’의 지리적 의미 또는 공간적 범위의 확장이 가능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남도’와 공기하는 관형어로 ‘따뜻한’ 사용된 ‘따뜻한 남도’의 경우이다. <표 8>을 보자.

<표 8> ‘따뜻한 남도’의 의미 변이 및 분포

구분	분포		비고
	빈도(건)	비율(%)	
광주·전남	146	85.9	
경남	14	8.2	
제주도	6	3.5	
경남+ 전남	3	1.8	
경북	1	0.6	제목: <내 생의 첫 선거>
총계	170	99.4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따뜻한 남도’의 ‘남도’는 ‘광주·전남’ 지역을 가리키는 경우가 8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경남’이 8.2%, ‘제주도’가 3.5%, ‘경남+ 전남’이 1.8%, ‘경북’이 0.6%의 순서를 보인다. 이러한 분포를 볼 때 ‘따뜻한 남도’의 경험은 대부분 ‘광주·전남’ 지역을 지리적 공간으로 해서 이루어지되, ‘경남’이나 ‘제주도’, ‘경남+ 전남’으로 확장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상도의 북쪽인 ‘경북’ 지역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1) ㄱ. **광주·전남**: 고들빼기와 갯김치는 열흘 이상 익힌 뒤 먹는 것이 제격인데 기 후가 **따뜻한 남도** 지역이 아니고는 맛이 제대로 배지 않는다. <아시아경제, 2009. 5. 25.>
- ㄴ. **경남**: 날씨가 따뜻한 남도의 길에선 설 명절 때면 봄기운이 느껴진다. 경남 함양의 지안재 길. <국정브리핑, 2008. 2. 5.>

- ㉔. 제주도: 제주도, **따뜻한 남도**라고는 하지만 바람과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장난이 아니다. <오마이뉴스, 2016. 1. 13.>
- ㉕. **경남+ 전남**: 12월에는 **따뜻한 남도**로 여행을 떠난다. 8일은 남해군 이순신 장군이 최후를 맞은 격전지 노량과 해오름예술촌, 나비생태관을 돌아본다. 이어 크리스마스 시즌인 23일부터는 2박 3일간 전남 해남과 완도 일대를 둘러보는 일정이 준비돼 있다. <뉴시스, 2012. 9. 8.>
- ㉖. **전북**: 한겨울에 어머니는 집안 개천으로 이불빨래며 옷가지를 나에게 안겨 주며 깨끗하게 빨아올 것을 명령하면 나는 거역할 수 없었다. **따뜻한 남도**라고 하지만, 혹독한 겨울 추위는 비켜가는 법이 없었다. <오마이뉴스, 2005. 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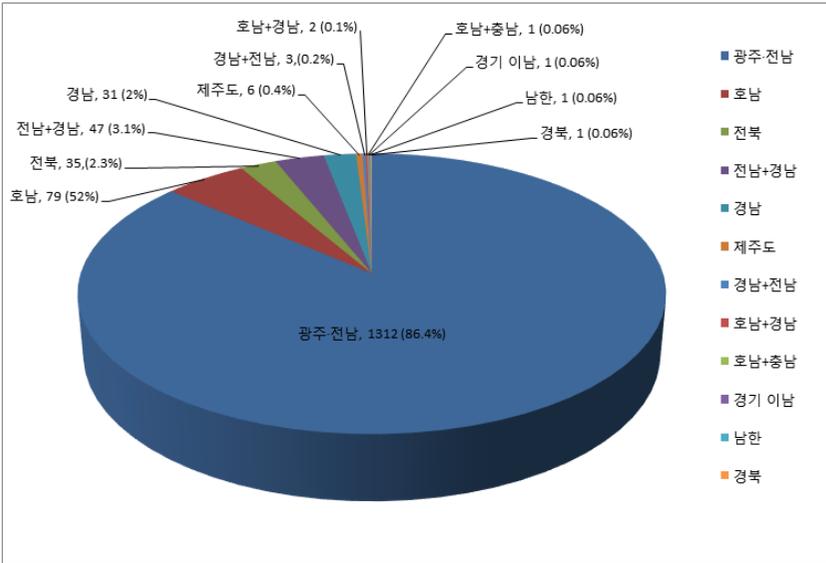
이상의 논의에서는 모두 7개의 ‘남도’ 관련 주제어들이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의 뉴스 텍스트에서 보여주는 ‘남도’의 의미 변이 및 분포 양상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7개 주제어들이 보이는 ‘남도’의 의미 변이의 전체적인 윤곽과 함께 그 변화의 방향이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 결과를 하나의 표와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남도 관련 핵심 어휘의 의미 변이 및 분포

의미	분포		비고
	빈도(건)	비율(%)	
광주·전남	1312	86.4	
호남	79	5.2	
전남+ 경남	47	3.1	
전북	35	2.3	
경남	31	2.0	
제주도	6	0.4	
경남+ 전남	3	0.2	
호남+ 경남	2	0.1	
호남+ 충남	1	0.06	
경기 이남	1	0.06	

‘남도(南道)’의 의미 변이 및 변화 양상 고찰(강희숙)

남한	1	0.06	
경북	1	0.06	
계	1519	100	



<그림1> 남도 관련 핵심 어휘의 의미 변이 및 분포

<표 9>와 <그림 1>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남도’는 상당히 다양한 의미 변이를 보이는 가운데 ‘광주·전남’을 가리키는 경우가 86.4%

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일정한 의미 변화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도’에 대한 한국어 공동체 구성원들의 경험은 대부분 ‘광주·전남’ 지역으로 한정되고 있다는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 I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본고는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의 뉴스 텍스트에서 확인된 남도 관련 주제어들의 사용 양상을 통해 ‘남도’의 의미가 전통적인 왕조 시대 또는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우리말샘』에서의 지리적 공간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 변이를 보이는 가운데 주로는 ‘광주·전남’ 지역이라는 매우 제한된 지리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남도’는 전통적으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하삼도(下三道)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 의미가 ‘광주·전남’ 지역으로 축소되는 의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광주·전남’ 지역으로 축소된 ‘남도’가 단순히 지리적 공간, 곧 전라도의 ‘남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되는 말로만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남도’의 토포스적<sup>17)</sup> 의미를 제시한 바 있는 김동근(2012)의 논의이다. 즉 김동근(2012: 7~8)에서는 ‘남도 예술’, ‘남도 민속예술’, ‘남도의 미학’, ‘남도인’이라고 할 때 ‘남도’는 동서남북의 방향을 가리키거나 ‘북도’와 짝을 이뤄 행정 구역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정서적인 반응, 특별한 의미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장소화된 언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남도’는 구체적인 장소나 대상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따뜻함’, ‘미적’, ‘웅숭깊음’, ‘정한(情恨)’ 등의 정서적 감흥을 주는 말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획득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따라서 오늘날 한국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남도’는 ‘광주 전남 지역’이라는 매우 제한된 지리적 공간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단순히 이러한 지정학적 의미에서 벗어나 특정한 정서적 감흥을 일으키거나 다른 지역의 그것과는 구별되는 문화적 고유성을 지니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

17) 토포스(topos)란 서사 텍스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티프의 고정된 형태를 가리킨다.

18) 이와 같은 관점에서 김동근(2012: 8)에서는 ‘남도’라는 말 자체가 지정학적 의미를 넘어서 문화적인 의미를 갖는 언어라고 보고 있다.

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남도’의 정서적, 문화적 의미가 지정학적 의미까지를 결정할 수도 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본고는 우리의 사전들이 일정한 의미론적 범주에 속하는 어휘 혹은 개별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을 토대로 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웹 말뭉치의 활용이 유용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남도’의 의미는 본 연구에서 관찰된 7개의 주제어 외에 더 많은 수의 주제어들이 보여주는 의미 변이의 총합을 토대로 추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 연구는 그 자체로 많은 한계와 제약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후일을 기약한다.

※ 이 논문은 2019년 8월 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9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김동근, 「손광은 시의 토포필리아와 ‘남도」, 『호남문화연구』 52, 2012.
- 김진해, 「코퍼스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의미의 본질」, 『한국어 의미학』 21, 2006.
- 남길임, 「웹 말뭉치를 활용한 언어 연구의 현황과 쟁점」, 『한국어 의미학』 60, 2018.
- 성일호, 「언어 변화의 사회언어학적 요인」, 『역사와 사회』 6, 1991.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 안의정, 「구어 어휘의 의미 연구 방법론」, 『한국어 의미학』 43, 2014.
- 오홍석, 『땅 이름 접의 미학』, 부연사, 2008.
- 이향천, 「언어 변화의 양상과 원인」, 『배달말』 57, 2015.
- Blackwell, S.(1993), From dirty data to clean language, In Jan Aarts, Pieter de Hann & Nelleke Oostdijk(Eds.), *English language corpora: Design, analysis and exploitation* 97-106, Amsterdam: Rodopi.
- Kilgarriff, A. & Grefenstette, G.(2003),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on the web as corpus. *Computational Linguistics*, 29(3), 333-347.

Abstract

A Study on the Semantic Variation and Patterns of  
Meaning in 'South Jeolla Province [남도(Namdo)]'  
- <Naver> News text-

Kang, Hui-suk

Today, it seems that certain changes in meaning of 'South Jeolla Province [남도(Namdo)]' are under way with a wide variety of semantic variations, as the social structure has changed so far, away from the traditional meanings presented in the Korean language dictionaries. Based on these linguistic facts, in the present study, it was looked at the Korean classical comprehensive database to find out what spatial experience the geographical meaning of 'South Jeolla Province' was traditionally built on, and then checked the changes of experience through the news textual search of the portal <Naver>.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confirmed that 'South Jeolla Province' has a limited geographical meaning, mainly the 'Gwangju and Jeonnam' region, with various semantic variations that are different from traditional geographical areas. In other words, "South Province of Korea (Namdo)" has traditionally been used as a reference to "Gyeongsang-Province, Jeolla-Province, and Chungcheong-Province," but is experiencing a change in meaning that by now it is being reduced to the "Gwangju-Jeonnam" region.

Of course, the meaning of 'South Jeolla Province' should be derived based on the sum of the semantic variations shown by more key words than the key words observed in this study. Nevertheless, it is very meaningful that our dictionaries should be based on the patterns of actual language usage in order to properly define the meaning of vocabularies or individual words that belongs to a certain semantic category, and that the use of web corpus can be useful in solving these problems.

**keywords**

Namdo, spatial experience, geographical meaning, language variation, language change, news text, web corpus